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5)

徐學老 勸童行 勸學文 (서학로 권동행 권학문) ②

出家人 胸中 貫古今 筆下 起雲烟
출가인 흥중 관고금 필하 기운연
方可了身性 以至於了命
방가료신료성 이지어료명
若自懶惰 託言所冀 無受道之資
약자나타 탁언소품 무수도지자
是 自壞了一生也
시 자괴료일생야

於公事畢然後 敢治私事 禁妄出
어공사말연후 감치사사 금망출

속가의 자제가 부모를 버리고 스승을 섬기어든 스승이 엄하지 않아 게으름을 피우도록 내버려두다가 급기야는 때를 놓쳐 배우지 못하여 말 한마디 제대로 이르지 못하고 아뢰는 것도 또한 둔하게 되며 회답의 서적이 성글고 글 한줄 제대로 베껴 쓰지 못하니 (이와같이) 일처리에 무능함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스스로 뉘우치며 (모든) 허물을 스승의 탓으로 돌리게 되니 어찌 (스승의 혼도에) 감사함을 운위하겠는가. 처음에 흰 옷(속가의 옷) 벗고 스승을 따르거든 스승이 혼계로 이끌되 자극히 엄격하고 건박케 하여 공사(공부 길)를 마친 연후에나 감히 사적인 일을 하게하되 망녕되이 나뉘음을 금할지어다.

讀書要背 寫字要楷
독서요배 사자요해
義理要通 道念要正
의리요통 도념요정
日漸月磨
일점월마
復還固有之天 得道自然之妙
복환固有之天 得道自然之妙

출가한 이 마음 깊이 고금을 관통하고 붓 한번 들어 구름안개를 일으켜야 바야흐로 이 육신과 성품을 알아 마치고 그로써 천명을 터득했다 하겠거니와 만약 자가 게을러서 성품이 도를 받을 자질이 못된다고 핑계를 댈다면 이는 스스로 일생을 망치는 일이다.

且如猿猴 獸類也 尚可教以義理
차어원유 수류야 상가교이예해
鷓鴣野鳥也 尚可教以歌鳴
구육 금조야 상가교이가창
人爲萬物之靈 如不學 視禽獸之不若也
인위만물지령 여불학 시금수자불약야

저 원숭이는 짐승 무리이나 오히려 기예를 가르칠 수 있고 때까치는 날짐승이나 노래를 가르칠 수 있으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 만일 배

“글을 읽음에 암송하여 숨은 뜻 밝히고 글을 쓸때는 법도에 맞도록 해야 한다”

우지 않으면 금수를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

爲人師者 自當尚嚴 師範以後道遊
위인사자 지당상엄 사범이후도준
與其初年 失於寬 而得嚴時之怨
여기초년 실어寬 이초이시지원
不若過於嚴 招嚴時之感
불약과어엄 초이시지감

스승되는 이는 오히려 엄한 것이 제격이나 스승이 엄해야 도가 존중되는 것이라 처음에 관대하여 엄하기를 잃어 훗날에 원망을 자초하느니 (처음에) 아주 엄하게 해 나중에 감사히 여감을 부르는 것(감사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

人家子弟 捨父事師 師却不嚴而縱其懶
인가지제 사부사사 사 각불엄이종기나
及其稍過 失學也 談社又第 言白又鈍
급기시과실학야 담토우늘 선택우둔
發達又疎 寫染又拙 變時事事無能
발견우소 사염우출 각시사사무능
方始自悔而歸於其師 何謂之感
방시자회이귀어기사 하위지감
初年 脫白從師 師長 訓導 極其嚴緊
초년 탈백종사 사장 훈도 극기엄긴

부환고유지천 독조통연지묘
由是 性海澄澄 心跡澄澈
유시 성해정정 심주형철
學山者 着脚蓬萊 學佛者 安身樂國
학산자 착각봉래 학불자 안신락국
到忘塵時 却感師長 嚴訓之功也
도망미시 각감사장 엄훈지공야
도입마시 각감사장 엄훈지공야

글을 읽음에 반드시 암송하여야 하고 (암송하여 숨은 뜻을 밝히고) 글을 쓸 때는 본보기 (법도)에 맞도록 해야 한다. (참뜻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의리를 반드시 통해야 하고 도를 생각함에 꼭 바르게 하여 날로 닦고 달로 연마해가면 본성의 날(고유의 천성)로 돌아가고 시러금 탁 트여 신통묘용한 경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성품의 바다는 맑고 깨끗해지며 마음의 구슬은 투명하게 빛나며 선도를 배우는 이는 발을 봉래산에 붙이고(선경에 우뚝서고) 봉래산은 전설의 산) 불법을 배우는 이는 몸을 인라국(극락)에 편히 하리니 이러한 때에 이르면 각설하고(문득) 스승이 엄격히 훈도한 그 공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龍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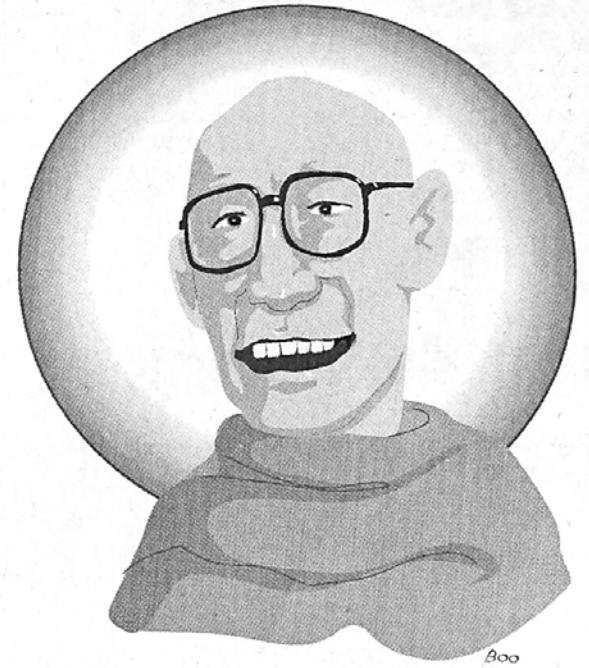
여름 특집

해외 고승 지상법석

“참고 수용하는 일이

아잔 수메도 스님 (영국)

스님은 미국태생으로 태국의 수행자 아잔 차 스님 밑에서 공부했다. 현재는 영국의 여러 불교사원 조사를 맡고 있으며 영국불지협회(The Buddhist Society of Great Britain)의 명예회장을 겸하고 있다.



참을성이란 덕목은 불교인들 세계에선 대단히 찬양되는 것이지만 현대와 같은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원하는 것을 제각제각 구해 오는 능력을 더 중시하지 참을성 같은 것은 별로 대단찮게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온갖 인스턴트 제품이 범람하는 바람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거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 즉시 그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참을성이 매우 박약해져서 혹사라도 구하는 것을 곧바로 못 구하게되면 단박 심란해져서 “이놈의 세상 개판이군”하고 부엌대거나 성을 내게끔 되어버렸습니다.

하도 이런 불평소리를 많이 들다 보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불평거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구나 싶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가령 파업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신속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이 있잖아. 나는 정말이지 지금 답장 빨리 꺼져 버리고 싶단 말이야. 이처럼 지긋지긋한 일들을 하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는 일 아닌가. 시간만 허비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나. 어디 시원하게 속성 과정을 밟든가 기막히게 효과적인 약이나 기계장치를 써서라도 금방 깨달게되는 것은 없을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엘·에스·디 환각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의 일이 생각나는군요. 그 때 사람들은 이 약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속성법이라고들 떠들었지요. “이 약 한알만 삼켜 보십시오. 그러면 뭐든지 환하게 알게될 테니까요! 구태여 번거롭게 승려가 되어 절에서 놀러앉아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한 알만 복용하면 담백에 깨달을 테니까요. 약사나 마약 취급자만 찾으면 됩니다. 달리 애쓰고 있을 필요는 하

“육신의 불편이나 고통을 벗어나려고 버둥대고 속상해 하고만 있어서야 언제 정신적 발전이 있겠습니까”

못해서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때 어찌겠습니까, 기다리며 참아 내는 길 밖에 더 있겠습니까. 좌선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몸 속에 고통스런 느낌이 일어나거든, 자신이 얼마나 참을성 없게 그 고통을 면해 보려 버둥대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십시오. 열이 나거나 병이 들었을 때도 그 육신의 불편이나 고통을 얼마나 속상해 하고 조급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집 쓰는 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렇듯 버둥대고 속상해 하고만 있어서야 언제 정신적 발전을 기약해 볼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야말로 참을성이라는 덕목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행 길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빙나가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인스턴트 선(禪)”을 공부할까 보다. 이렇게 기약 없이 상좌부(上座部) 불교에 매달려 봐야 괴롭기만 할 뿐이지 무슨 소용

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것 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몇 번 엘·에스·디를 먹고 환각 상태를 맞은 연후에야 사람들은 깨달은 것 같던 기분이 어딘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남은 것은 전보다도 더 못한 상태, 참을성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찰에서는 참을성을 키우는 일이 변함없이, 여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특히 동북부에 있는 숲속 사원에 가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참을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생활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온갖 불쾌한 육체적 경험부터 견뎌내야 합니다. 말라리아 열병이라든가 뜨거운 여름철 같은 것을 말이지요. 사실 동북 지방의 여름철은 내가 겪어본 중에서 가장 지겹고 황량

한 계절이었습니다. 허구한 날이 마냥 똑같이 지겹지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똑같은 날이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모든 것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무덤구나. 더위와 모기와 땀 범벅의 이 길고도 긴 하루여.” 정말 끝도 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하루, 이런 하루가 나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루해 하던 어느 날 퍼뜩 정신이 듭니다. “아, 이 얼마나 참을성을 기를 좋은 기회인가!” 참고 견뎌 내는 공부, 다시 말

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장애와 망집(妄執), 들뜬 마음 따위를 견뎌내고 그리고 밖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공부가 있을 뿐입니다. 이곳 처서스트 같은 곳을 견뎌 낼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진정한 치서스트를 견뎌내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온통 불평투성이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견디겠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없

다. 자유로운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등 불평 소리가 많이 들려 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생활이 없다는 등 바라는 것은 많고 이래저래 마음은 마냥 들뜨지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는 보다 좋은 곳, 이보다 더 나은 어떤 곳이 항상 자리잡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참을성을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동북부의 그 뜨거운 여름철을 내내 앉아 배길 만한 결의가 되어 있어야 할

불교 전통의식 교육원 제 14기 학인 모집요강

불교전통의식으로서는 불교음악으로서의 범패와 승무(바라춤, 착복무)를 들 수 있다.

범패란 전통불교음악을 지칭한 말로서 그 기원은 인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범패음악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의 한국 寺院은 영산회상의 환희심을 잃은지 오래이며, 몇몇 특수사찰과 교육원에서 그 명맥만이 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梵唄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이 실추되어 있는 바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기신 훌륭한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보다 잘 전승해 주었을때 그 종교적 문화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볼 것이다. 이에 본 교육원에서는 사라져가는 범패의 가치성을 보다 높이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제14기 전통의식 교육생을 모집하게 되었는데바 전통의식에 관심이 있으신 스님 및 신도님께서는 방문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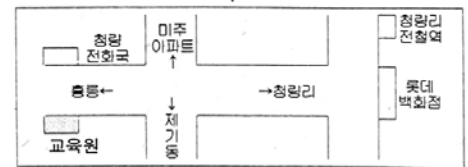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원장 습掌

교육과정

- 기초과정: 사찰(사중)생활에 필요한 기본의식 및 예불·불공
기본과정: 천도의식 49제의식 범패·범음 등 제반의식
요약과정: 바라춤, 착복(나비춤) 태징치는 법 등
강사: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이수자 임명수 원장 직강
교육기간: 기초과정3개월 기본과정 6개월 요약바라 3개월
기초과정-오후5시-6시30분
기본반-오후7시-8시30분
교육시간: 주4회(월~금요일)
접수일자: 1995년 8월21일~9월16일
※ (AM 10:00~20:00) 상담자 대기
개강: 9월 18일

- 자격: 종단에 구애없이 전통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시고 배우고자 하시는 스님 및 사찰관리자, 신도 모두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육원 발행) 사진 3매(반명함)
문의전화: (02)967-7093

약도



130-014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청량리 전화국 건너편 3층)

967-7093

상담자 항시 대기

불교 전통의식 교육원